

“양록 자조금 사업의 성공을 고대한다.”



정 재 식 사장 (대봉사슴농장 대표)

“올해 계획은 품종 좋은 사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슴을 사육하는데 있어 품종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품종의 종록을 2~3마리 더 구입을 해서 질 좋은 녹용을 생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록인들이 단합해서 협회에 가입을 하고 의무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양록 사업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은 섭 사장 (우성사슴농장 대표)

올해에는 무엇보다 협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가 잘 되어야 양록 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마음이 중요한데, 현 양록산업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단결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축이 사단법인인 한국양록협회가 되어서 양록인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양록 산업을 발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의 석 사장 (한진사슴 농장 대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좋은 종자 생산을 올해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30두 정도의 임놈들을 좋은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을 시켜 올해는 좋은 종자의 사슴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 태 만 사장 (태경사슴농장 대표)

한국이 외국보다 경제가 더 안정되고 발전되어 우리 양록도 외국에 못지않게 튼튼하게 발전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협회에 가입된 농장을 비롯해 모든 양록 농가들이 자조금 사업에 많이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태 암 사장 (보배사슴농장 대표)

협회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협회를 위해 협회의 자조금 사업에 모든 농가들이 동참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슴농가가 우리나라에 많지만 그에 비해 협회에 가입 되어 있는 농가는 아주 미흡한 수준이거 든요. 전국의 사슴 농장이 협회에 많이 가입해서 협회가 다시 활기를 되 찾고 자조금도 잘 되어 사슴농가의 번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 농가의 가정도 편안해 지겠죠?

**이 석 형 사장 (오성사슴농장 대표)**

올해는 경기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양록업이 너무 바닥을 달리고 있는데 양록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우선을 풀려야 합니다. 양록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 사슴을 한 마리 파는데 너무 헐값에 팔려 사료 값도 나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풀려 양록 사업이 발전해 제값주고 사슴을 팔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성 복 사장 (비룡사슴농장 대표)

2006년은 녹용이 많이 팔려 사슴 값이 올랐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록인들 모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조금 사업은 힘든 양록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협회에 가입된 농가수가 적다보니 협회에서 바라는 만큼의 자조금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자조금 사업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 영 수 사장 (부안사슴농장 대표)**

우선을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어 여러 분야의 산업이 두루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경제가 회복이 되면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발해 지는데, 우리 양록 사업도 이에 힘입어 올해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